

멕시코 종족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날의 상황

주 종 택

종족성의 다원적인 성격 때문에 멕시코의 종족 문제를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멕시코는 원주민들에 대한 모순적인 정책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통합을 위해 원주민 유산을 장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주민들을 원주민 전통을 포함하거나 강조하는 지배적 문화에 통합시킴으로써 원주민성을 비하한다. 이런 종류의 종족 정체성에 대한 담론은 식민시대에도 문제가 되었다.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의 관습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무시했다. 멕시코의 종족 정체성의 문제는 과거의 식민정책이었던 이종족의 결합과 라틴화의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자연히 현재의 종족갈등은 과거와 현재의 종족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혁명 이후에 멕시코에서 국가의 종족 정체성의 생산과 재생산은 국가적 수준에서 완전하게 독점되었다. 그러나 일관되지 못하고 비효과적인 정부의 노력은 종족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멕시코의 원주민 집단들은 너무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적절한 종족정체성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다양한 정치조직의 등장으로 표현되는 근래의 원주민 정체성의 새로운 발견은 원주민성을 정의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많은 원주민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종족적 특이성을 유지하거나 버린다. 오아하카 주의 원주민 반응에 대한 세 가지 사례가 종족정체성이 변형되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전통적 종족정체성을 변형시켜서 국가적 정체성으로 만들려는 국가의 정책은 풀지 못할 모순에 빠지게 된다. 멕시코의 종족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공동체와 넓은 지역 및 국가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겠다.

I. 멕시코 종족성의 문제와 역사적 발전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원주민(indígena)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Gonzalez 1994:30), 원주민 문제가 국가의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보다 전체인구 중에서 메스띠소(혹은 라디노-mestizo or ladino)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든다. 오늘날 멕시코에서는 원주민들에 대한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메스띠소들의 원주민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스띠소들은 원주민들의 문화 유산을 자랑스럽게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원주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원

주민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원주민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메스띠소와는 다르고, 이상하고 시대에 뒤진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원주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식민시대 초기의 선교사들이나 역사 기록자들의 원주민 문화에 관한 입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 현재의 종족 문제는 원주민들을 식민 정부에 동화시키려 했던 정복자들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6세기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원주민의 식민화 정책은 억압과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런 물리적인 힘의 사용이 오늘날의 종족간의 갈등에도 이어지고 있다. 서반아에서 온 여자의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은 수의 정복자들이 다수의 원주민들에 대한 식민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채택된 문화적 생물학적인 이종족 간의 결합(miscegenation)은 원주민의 매스띠소화(mestizaje 혹은 mestizoization)에 기여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멕시코의 인구 구성을 다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인종 문제와 더불어 원주민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형은 원주민들의 종족 의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즉, 기본 자물을 재배하는 생계영농에서 대규모 상업작물을 생산하는 자본제적 농업으로의 편입은 원주민들의 서반아인에 대한 의존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다. 첸스(Chance 1978:118-119)는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원주민들의 정체의식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다. 즉, 원주민들의 정체의식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피부색 같은 외적인 모습에서 외형, 옷, 언어, 혈통, 문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서반아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에 기반을 둔 서반아인들과의 접촉은 서로 다른 종족간의 결합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원주민만의 고유한 언어와 관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동화 정책아래서 원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서반아의 식민 정책을 피해 고립된 산간 지역으로 피신하거나, 메스띠소 사회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식민 체제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Stavenhagen 1975:208). 그렇지만 모든 원주민들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이 강압적인 식민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반아의 식민 통치를 거부하기 위해 추운 고지대에 자리 잡은 폐쇄적인 원주민 농민공동체에서는 나름대로 전통적 의례 행위나 축제(fiesta), 고유한 언어를 지켜나감으로써 종족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고, 기후 조건이 좋지 못해서 농업 생산성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기는 못했다. 더욱이 새로운 기술과 물자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이루기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원주민 마을들이 사회 경제적,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식민사회 아래로 인종 차별의 구실이 되었다.

II. 식민 시대의 복음화와 원주민의 종족성

처음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온 선교사들과 역사 기록자들은 원주민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정복시대 이전의 복잡한 아스떼까(Azteca)와 잉카(Inca) 문명에 매혹되었으며, 원주민들의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풍습에 동정적이었다. 동시에 서구인들의 판단으로 외견상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종교, 관습, 언어를 경멸하기도 했다. 특히 종교에 대한 정복자들의 입장은 대단히 완강해서 원주민들의 민간 신앙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천주교로의 개종을 강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입장은 비교해보기로 하자.

먼저 원주민들의 사회 문화제도 중에서 특히 역사 기록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고도로 세분화되고 계층화된 정치적 계급 구조였다. 그들은 이런 정교한 정치적 지배 질서를 통해 원주민들의 과거 역사에 감명을 받기도 했으며, 원주민 사회를 이상화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원주민들의 정치 체제가 합의와 조화라는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로웠다. 일부의 기록자들은 이런 점들을 약간 과장해서 원주민의 지배층들이 피지배층을 호혜적인 관계에서 보살피고, 억압이나 착취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De Zorita 1963; Sahagun 1950). 이런 종류의 원주민에 동정적인 기술들은 식민지 관리들의 눈에 거슬리게 되었고, 기록물 자체를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잉카 지역에서도 가르실라쏘(Garcilaso)는 지배층이 일반 대중의 여러 가지 복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그는 잉카의 지배 법칙이 자연법(Natural Law)에 따라서 행해지며 항상 평화와 조화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원주민 정치 제도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용수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다른 일에서도 항상 그렇듯이, 서로 물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Garcilaso 1965:248). 뽀마(Poma)는 문화적 측면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노래나 춤에는 마술이나 주술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술에 취하는 것만 제외하면, 순수한 기쁨과 기분 전환의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많은 역사 기록자들이 식민지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과 의례적인 살해 행위에 낌더리를 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 사람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기도 하며(Duran 1964),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여자를 겁탈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Pagden 1975),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원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례 행위는 천주교로의 개종에 큰 장애가 되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의 신앙이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전통적인 원주민들의 토속 신앙에 가혹하게 대처했고, 수시로 종교 재판을 실시해서 우상 숭배라는 죄명으로 처형하기도 했다. 때로는 이런 종교 재판의 과정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원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부류의 선교사들은 원주민 사회의 지배 법칙이 폭력과 잔인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믿었다.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전부 틀린 것은 아니다. 식민 통치 이전의 원주민 사회는 강압적인 계급 구조를 지닌 통치와 평등에 근거를 둔 호혜적 인간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그러한 제도의 운영이 서구와는 다른 원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다. 전체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였다. 예를 들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엄벌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사회 규범의 확립과 가혹한 처벌 가운데 어느 것에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이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선교사나 역사 기록자들이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은 원주민 사회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먼저, 원주민들의 언어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누에바 에스빠냐(Nueva España)라고 불렸던 멕시코 지역에서는 같은 원주민 안에서도 방언이 너무 많아서, 의사 소통에 큰 지장을 주었다. 그 렇기 때문에 원주민과 정복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원주민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정복자들이 원주민들의 생각을 식민지 지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선교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이유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인접한 부족간의 교류로 원주민들이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들은 여러 신들의 역할과 각각의 신에 대해 행해지는 의례가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교사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못했고, 일관성이 없을 때도 많았다. 가끔씩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본 피상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원주민사회 전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많은 기록물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의 온순함, 부드러움, 예의, 단순성, 참을성, 정교한 공예품 생산의 기술 등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단순히 의례와 신앙이 합쳐진 것으로서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의례 행위도 너무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Ricard 1966:31).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인들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신화나 미신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화적 차별성이 원주민들과 서반아인을 갈라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전통적인 원주민 문화의 파괴는 원주민들에게 천주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식민 정책의 중요한 단계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식민 시대 초기의 격리 정책에서 동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서반아에서 저항적인 이교도인 희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인하였다. 식민지에서 이를 선교사들의 역할은 식민지 관료들보다 훨씬 컸다. 교회가 자주 집회를 기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종교적 메시지는 원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직접 지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의사 전달의 수단이 되었다. 원주민들의 천주교로의 개종은 원주민사회의 전통적 사회구조를 해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식민지 지배자들은 점차로 격리 정책을 없애고, 모든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에 맞게 통합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원주민들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을내의 의무적 행위나 공동 생활을 해체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Israel 1975:45).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이 믿는 토착신이 천주교의 하느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서반아의 침략으로부터 막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천주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했다. 선교사들은 천주교로의 개종을 쉽게 하기 위해 세례 절차를 간소화하여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천주교로의 개종은 원주민들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주민들의 종교와 관습을 근절시키는 것이 서반아인들의 최대 목표였다. 이런 유형의 원주민 사회의 문화적, 정신적 변형도 식민 지배의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였다.

식민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항상 원주민 문화의 전면적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필요에 따라 서반아인들은 원주민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일부의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에 대한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귀족 출신의 원주민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식민통치에 참여시킴으로써 직접 통치의 부담을 줄였다(Tejera Gaona 1993:197). 서반아의 문화가 더 우수하다는 가정 아래에서 원주민문화의 일부를 접합시킨 문화적 융합(cultural syncretism)은 원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장려되었다(Liss 1975:142). 이런 계획은 소수의 원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뿐(Barabas 1986:223),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식민지 지배세력에 대한 원주민들의 저항은 명확한 지도력아래에서 움직이는 집단적 대중반란의 성격을 띠어서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즉흥적이어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했다(Taylor 1993:111). 선교사들도 가끔 원주민의 개종이 충실히 않다고 가끔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원주민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부역과 재화를 마련해줌으로써 교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Spores 1984:144-145). 간추려 말하면, 원주민과 서반아인들 모두 나뉘어 있기보다는 서로 협력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많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갈등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반대했다(Spores 1993: 101). 즉, 원주민들이 전부 사라지면 서반아인들에 의한 원주민들의 경제적, 이념적 차취가 불가능해지고, 원주민의 입장에서도 천주교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서반아인들이 마련해준 광범위한 상권을 이용해서 생계를 해결하기가 용이했다.

초기의 정복자들은 대규모의 종족 결합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원주민과 서반아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하였다. 식민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착취할 대상이 명확해야 했기에, 원주민의 존재가 필요했고, 따라서 인종차별정책을 정당화했다 (Marino Flores 1967:13). 처음에는 신체적 외형과 함께 혈통도 종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점차로 서반아에서 온 정복자들은 원주민 여자들과 자유롭게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피가 섞인 집단의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처음부터 라틴아메리카에는 서반아 여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종족간의 결합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려되었다. 더욱이 서반아인의 수가 전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식민 지배자와 원주민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메스띠소의 출현이 바람직했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의 종족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다가 대서양 연안 지방에는 카리브해 지역과 브라질의 설탕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동자들이 옮겨오면서 종족 구조가 한층 복잡하게 되었고, 원주민과 백인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종족 구분 체계가 쓸모 없게 되었다. 게다가 원주민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고유한 생물학적 특징을 잊지 않고도 서반아 문화를 따름으로써 지배적인 식민 사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마을을 떠나서 메스띠소나 라디노들이 요구하는 사회 문화적 규범을 지키게 되면서,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메스띠소나 라디노로 통용되는 일이 흔해졌다”(Wagley 1968:167). 이에 따라서 상당수의 원주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착취를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졌다. “강제적인 동화 정책 이외에도, 원주민 여성들은 자신들과 유럽인들 사이에 난 자식들이 원주민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원주민에게 부과했던 강제 노동, 공물, 많은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tein and Stein 1970:62). 이렇게 해서 식민시대 후반에는 외형적 요소와 더불어 문화적 요소도 원주민과 서반아인을 구분하는 변수가 되었다.

선교사들의 초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원주민들은 식민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들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이들은 고립된 추운 산간 지역으로 피신하여 자신들만의 독립된 사회를 이루었다. 실제로 서반아의 식민 지배자들이 자리적으로 고립된 원주민 마을을 모두 다 통제하기란 불가능하였다. “서반아의 존재는 영향이 크기는 하였지만, 일부의 원주민 마을들이 새롭게 조성되어지고, 새로운 요소들을 첨가하면서 그들 자신의 언어 정체성을 살릴 수 있었다. 이런 지역에서는 외부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지역적 자율성을 지켜나갔다”(Lockhart 1976: 118). 소수의 원주민들은 경제적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반아인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급자족적인 경제 체계를 갖는 데 만족했다. 흔히 식민 지

배의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원주민 사회가 많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화적 고립이 원주민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원주민들이 식민 정부의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게 되었다.

한편으로 식민 지배자들이 모든 원주민들을 메스띠소화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정치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차취를 위해서 일정한 수의 원주민들이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작업을 위해서 강제로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레빠르띠미엔또(repartimiento) 혹은 미따(mita)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원주민들을 모두 없앨 수는 없었다. 특히 광산에서 은을 채굴하는 데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자, “모든 원주민 마을에서 해마다 성인 남자의 1/7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자로 사용했다”(Wolf 1982:136)는 예를 감안하면, 처음부터 원주민들의 메스띠소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III. 현재의 종족 관계와 원주민의 정체성

오늘날 원주민들의 정체성은 원주민과 메스띠소간의 역사적 관계의 변화에 의해 규정된다. 해리스(Harris 1964:35-36)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종족 문제의 원인을 밝히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이 정복 이후 원주민들에게만 추구된 노동 정책의 결과라고 서술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메스띠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멕시코에서는 메스띠소와 원주민들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멕시코나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피부색을 기준으로 원주민과 메스띠소를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메스띠소가 유사한 생물학적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 다양한 특질을 포함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 피를 섞지 않고, 문화적 동화만으로도 원주민의 상태를 벗어 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원주민과 메스띠소와의 관계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원주민들을 구분하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지리적 위치나 자신들 스스로의 인지 여부를 변수로 쓰기도 하나, 멕시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원주민 언어와 서반아어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Psacharopoulos and Patrinos 1994:26). 이렇게 누가 원주민인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주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메스띠소가 아닌 속성(non-mestizo-ness)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쉽다. 다시 말해 현재의 원주민의 상태를 알아보려면, 멕시코 사회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이 차별을 받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낮은 위치를 점유하면서도 그들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배적인 메스띠소들이 서반아의 정복자와 겹탈당한 원주민 여성들 사이에 난 후손들이라는 사실이다(Paz 1985:65-88). 서반아에서 온 정복자인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의 정부이자 통역사의 역할을 한 원주민 여성이었던 말린체(La Malinche)는 멕시코인들에게는 매춘부이자 국가를 배반한 반역자로 비추어진다. 말린체는 메스띠소 종족의 어머니(Mexican Eve)이고 멕시코 정체성의 창시자이지만, 그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멕시코 사회에 항상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다. 그녀의 역할과 가능에 관한 실제적 평가는 역사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원주민과 메스띠소 적 요소 중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궁극적으로 원주민들은 멕시코 사회 내에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혈통에 가깝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원주민들이 컬럼버스 정복 이전의(pre-Columbian) 문화 유산을 지켜오면서 멕시코문화의 정통성을 마련했다는 것도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원주민의 역할을 살펴보자. 멕시코에서 국가 정체성의 생산과 재생산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다시 말해 어떻게 종족 관계가 역사적으로 정의되어 이해되는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하게 되었다. 특히 인류학자들에 의해 국립 원주민 연구원(INI : Instituto Nacional Indigenista)과 국립 인류학 및 역사학 연구원(INAH :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이 설립되면서 원주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체계화되었다. 독립 직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반아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많은 원주민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살고 있던 농촌지역을 떠나서 서반아어가 사용되는 도시로 이주하고, 한편으로는 원주민들이 자손들에게 원주민어를 가르치려는 노력을 등한히 하면서 원주민어의 사용자는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혁명 이후에 멕시코에서 원주민들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양면성이 나타났다. 다양한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워져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했지만, 원주민어의 연구가 국가의 과거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결국, 국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원주민을 이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iding 1984:2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원주민들을 멕시코 사회에 동화시키고, 원주민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단적으로 말해서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존재는 거추장스런 것이었다. 한 예로 원주민들이 멕시코 혁명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나타난 농지개혁은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고, 원주민 마을들을 통합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오아하카(Oaxaca), 치아빠스(Chiapas), 유까딴(Yucatán) 반도 지역에서 농지개혁의 수혜자는 전체의 20%도 미치지 못한다(Adams 1967:477).

프리드랜더(Friedlander 1975:192)에 의하면 멕시코의 정책은 원주민들과 메스띠소들을 구분하는 동시에, 원주민들을 멕시코 주류 사회에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원주민의 문화를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면서 멕시코에서 원주민 문화와는 차이가 있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비원주민과 원주민 간의 긴장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정책 때문에 원주민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원주민들이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게 되며, 나아가서 원주민 사회가 점진적으로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으로 멕시코의 문화가 원주민들과는 동떨어진 서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식민시대 이전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문화적 정통성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원주민의 문화와 관습이 국가에 의해 국가적 정체성의 필수적인 한 형태로 인식되어지게 되었다. 원주민성(Indianness)은 국가정체성의 확립과 민족정신의 고취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된다(Urban and Sherzer 1991:10). 즉 서반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는 서반아의 지배와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에 의한 일방적 문화의 강요와 말살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서(encounter), 멕시코화(Mexicanización)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원주민 유산의 찬양과 격하라는 모순적인 사상으로 정의된다(Nagengast and Kearney 1990:66-67). 즉, 원주민들을 착취하기 위해 그들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한편 그들을 찬양하기 위해 긍정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종족적으로 원주민들이 열등하다는 사회적 통념은 지배적인 메스띠소들에 의해 원주민들이 개념적으로 다른 집단(otherness)에 속한다고 표현되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멕시코 정부의 국가 통합 정책과 관련이 있다. 와써스트롬(Wasserstrom 1983:127)은 종족적 갈등이 여러 형태로 변형되고 조작되어지며 원주민사회와 메스띠소사회와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했다.

오늘날 멕시코에서 원주민의 정의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어, 의복 같은 문화적 요소, 유전적 요소,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정한 요소만을 강조하는 환원주의적 입장을 피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캉크라프트(Cockcroft 1983:193)는 일부 지역에서 경제적인 차이가 종족의 구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많은 경우에 가난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노동 형편이나 경제적 조건들을 고려해서 원주민이라고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계상의 원주민 수는 훨씬 많아지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프리드랜더는 우에야빤(Hueyapan)이라는 원주민 마을에서 종족 의식을

조사했는데, 메스띠소와 원주민의 의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인근의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과 외형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그들은 혁명 이후 정부의 공식 입장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원주민이 유전적 기준보다는 문화적 관점에 의해 구분된다고 믿고 있다”(Friedlander 1975:77). 이렇게 원주민의 정의는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멕시코의 원주민 집단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상태로 변화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적절한 종족의 정체성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부에서 동화와 통합 정책을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원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만든 반면에, 원주민들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아하카의 원주민들이나(Ruiz González 1990:54) 치아빠스 주의 원주민들의(Wasserstrom 1983:215) 경우를 살펴보면 원주민들은 동질적 집단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적 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부의 원주민들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반면에,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 분화가 진행되면서 원주민들의 정체성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원주민 마을이 분리되어 대립되는 경우도 있다. 프리드랜더(Friedlander 1975:79-80)는 우아야빤에서 메스띠소 문화를 수용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적 집단과 원주민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해야 된다는 보수파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더욱이 한 마을에서 원주민만 쓰는 사람과 서반아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재해 있을 때는, 그들이 외부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를 수가 있어서 원주민 사회가 내부적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원주민 사회가 항상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원주민 운동은 원주민성에 기반을 둔 공통적이고 일관성 있는 새로운 사회의 구체적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Ströbele-Gregor 1994:113). 결론적으로 원주민 마을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고, 원주민들 사이에 내적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종족 정체성을 분석하는 데는 개인과 마을 및 국가의 역동적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IV. 원주민운동과 종족갈등

근래에 들어서 여러 정치 조직에 의해 시도된 원주민 정체성의 새로운 인식은 원주

민 문제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주민들은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를 느끼게 되면서 원주민 의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법 집행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공정성을 요구하고, 도시에 집중된 제반 시설을 농촌 지역에도 설치하고, 생산 활동을 지원하며, 메스띠소의 지배를 없애면서 자신들의 관습을 지켜나갈 권리를 주장했다(Hewitt de Alcántara 1984:118). 이런 종류의 새로운 원주민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종족 의식이 새롭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원주민들이 지역적, 국가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제한된 기회만을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서 종족문제에 기반을 둔 갈등과 사회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지역이 분쟁에 말려들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종족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 사회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통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일부 소수집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내의 집단 폭력사태는 정치 경제적 불만, 종교적 논쟁, 종족간의 갈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자신들의 자율성, 완전한 독립, 권리 회복 등을 쟁취하려는 종족집단들의 움직임이다. 대표적인 예가 1994년 1월에 치아빠스 주의 라칸돈(Lacandón) 정글 지역에서 북미자유협정의 발효를 반대하며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무력투쟁을 선언한 사뻬띠스따 민족해방군(EZLN : 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이다. EZLN은 텔탈(Tzeltal), 초칠(Tzotzil), 토홀라발(Tojolabal), 촐(Chol), 소께(Zoque) 등 마야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종족갈등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Nash 1995). 치아빠스사태는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이 지역의 극심한 경제적 빈곤 때문에 시작되었다. 치아빠스에서는 멕시코 혁명 이후에 실시된 토지개혁이 대지주들의 반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토지가 없는 농민들과 지주들 사이에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초기에는 EZLN은 원주민들의 권리와 자치를 요구하며, 동시에 일자리, 토지, 의료시설, 학교, 도로 등 생계수단의 해결과 편의시설의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의 제한적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1996년에 들어서서 정부와 EZLN은 협상을 갖고 94년에 발생했던 원주민 농민반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원인들을 해결하고, 원주민들의 권리와 문화를 인정하며, 원주민들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원주민들의 조직화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도 원주민운동이 국내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멕시코사회에서 원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운동은 지역에 따라 편중되어있다. 원주민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쪽과 남동쪽은 활발한 반면에, 원주민의 비율이 낮은 중부나 북서부 지

역은 침체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원주민들이 조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들 고유의 전통적인 종교적, 이념적 체계들을 강조하면서, 외부 사회와는 구별되는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이런 현상은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종족적 퇴행(ethnic involution) 같은 형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해리스(Harris 1964:40-41)에 의하면 일부의 원주민들은 그들이 가장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메스띠소들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신들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인들과의 접촉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여 마을 내의 생활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또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을 지속시켜나간다. 일반적으로 원주민 집단의 정치적 조직화는 단순한 사회적 해체나 경제적 침체의 결과는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점은 원주민 사회의 정치경제의 역사적 발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원주민들의 정치 행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류학자들이 지나치게 원주민만의 고유한 문화(민간 신앙, 친족 제도, 축제, 까르고(cargo) 제도, 수공예품 생산, 생계 영농, 주술)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와써스트롬(Wasserstrom 1983:3)의 비판은 적절한 것이다.

곤살레스(González n.d.:72)는 원주민들의 정치 의식이 새롭게 발전되는 원인이 그 동안 정치적 참여도가 낮은 데 있다고 했다. 최근에 멕시코 정부는 국가의 정치 관행에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면서, 원주민들의 종족 정체성을 재검토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정치 행태를 두고 볼 때, 원주민들이 국내의 정치 문제에 참여한다고 해도 정치 의식이나 정치 문화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원주민에 대한 억압과 침체는 분명히 원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종족과 계급에 기반을 둔 차별로 인해, 원주민의 정체성이 멕시코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원주민 운동의 발전으로 메스띠소와 비교하여 원주민 사회의 고유한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론적 접근 방법인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의 등장은 원주민 사회의 유대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상은 원주민 사회와 멕시코의 여타 부문이 서로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다. 1950년대에 시작된 이 사상은 유럽의 인류학자들이 원주민들의 생활 상태를 식민지적 상황의 연속이라고 보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종족이론가들의 개념인 ‘내적 식민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원주민들의 문제를 표면화시켰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인디헤니스파(Indigenista)들이 내세우는 대부분의 원주민 특유의 문화적 특징들이 식민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식민 시대에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이다. 프리드랜더(Friedlander 1975:100)는 원주민 마을의 정교하고 복잡한 행진, 마요르도미아(mayordomía) 제도, 축제 때 쓰는 음식, 여러 가지 놀이 형태와 음악 등이 식민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디헤니스파들은 의례 행위나 기타 관습의 기원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현재 원주민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독특한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멕시코 정부도 원주민의 유산이 멕시코 사회의 근대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계속 보존하기를 원한다. “멕시코의 원주민 유산을 친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현존하는 원주민들을 살아 있는 전시대의 유물로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결과로 현재의 원주민들은 모순 속에 살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멕시코의 고상한 원주민들이 과거에 대한 살아 있는 실체로서 유지되는 반면에, 메스띠소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원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Friedlander 1975:130).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로서 원주민의 메스띠소화와 동시에 메스띠소의 원주민화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Knight 1990:86).

결과적으로 정부의 원주민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이 원주민들에게 항상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정부는 필요에 따라 원주민의 존재를 능숙하게 조작하면서, 그들이 대규모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종족의 구분이 역동적인 과정이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종족관계를 일반화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완전한 원주민사회의 전형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인디헤니스모는 백인과 메스띠소 등 비원주민들이 원주민 문제를 표현하는 방편이기도 하다(Knight 1990:73-77). 인디헤니스모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었으며, 그것의 구체적 정책방향과 실천목표는 종족문제에 대한 국가의 담론이 변화하면서 수시로 바뀌게 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겠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원주민에 관한 정책이 원주민의 입장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비원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원주민 문제를 정의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기존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는 세력이 새롭게 나타났다. 이들은 원주민 자신들을 위한 원주민 정책이라는 생각에서 인디헤니스모라는 용어 대신에 인디아니스모(Indianismo)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에르난데스 디아스(Hernández Díaz 1993:45-46)는 이들의 주요한 요구사항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했다: ① 원주민들의 이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주민 권리의 존중; ② 원주민어를 공식언어로 인정; ③ 조상들의 문화를 재검토하고 존중; ④ 전통적 생산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확립. 인디아니스모는 원주민들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권

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위낙 다양해서 모든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원주민들의 운동이 분산되어 있고 단편적이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정부의 원주민사회 해체를 돋는 강력한 조치들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멕시코에서 원주민 문화의 보존이나 해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있을 수 없다. 라이딩(Riding 1984:203-204)은 이런 복잡한 상황이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생기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첫째, 전통적 인류학자들은 문화적 관심에 근거하여, 정부가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고립된 채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마시스트들은 문화적 격리가 원주민들의 프롤레타리아화에 역행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주민들을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시켜 여러 가지 문명적 혜택을 입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일부의 진보적 인류학자들은 원주민 집단의 존재가 멕시코 전체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통합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만 하면 되고 온정주의나 통제를 통한 지배는 지양해야 한다고 믿는다.

인디헤니스모를 비롯한 다양한 사상의 등장으로 정부의 원주민에 대한 정책이 과거의 강압적인 동화·통합 정책에서 원주민들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런 이념적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조건도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제조업 제품의 유입으로 기존의 자급체제였던 원주민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원주민들은 과거와 같이 평등하지 못하고 생계를 해결할 수단이 부족한 농촌 마을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기회의 불충분으로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멕시코의 도시들은 이미 새로 유입되는 원주민들을 노동시장에 흡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정부는 종족적 문화가치를 내세워 원주민들의 외부사회에 대한 욕망을 제한하면서 농촌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이렇듯 원주민들의 위치가 정부의 태도에 따라 크게 변하지만 원주민 개인들의 의사 결정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원주민 마을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여러 가지 제한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통로를 거쳐서 지배적인 메스띠소 사회에 동참하여 구성원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V. 지역적 상황과 원주민 종족성의 변화

종족 정체성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원주민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종족 주체성을 강화하려 하고, 불리하

게 진행이 될 때에는 종족 의식을 소멸시키려고 노력한다. 여기서는 이런 종족성의 변화 유형을 원주민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과정과 강화되는 과정을 비교하여 검토해보려고 한다. 멕시코에서 오아하까 주에 아직도 많은 원주민이 살고 있고, 전체 원주민이 62개중에서 16개가 오아하까에서 사용되고 있다(Valiñas 1993:165)는 점에서 오아하까 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먼저 대부분의 원주민 사회에서 외부 사회와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원주민들의 정체성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다. 여기다가 원주민은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민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원주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기가 어렵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불법 노동 이주를 하는 빈도 수가 많아지면서, 영어와 새로운 물질 문화가 유입된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이나 가난한 메스피소들은 열등 의식을 느끼게 되고 전통 문화와 원주민 언어를 무시하게 된다(Joo 1995).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영어의 효용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원주민 언어나 서반아어를 쓰는 것은 곧 이등 시민이라는 생각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학교에서도 서반아어와 영어만 배우게 되면서, 원주민 언어의 사용은 무지와 무능을 의미하게 된다. 일부의 원주민 마을에서는 원주민어와 서반아어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지만, 주된 교육목표는 원주민들에게 서구의 과학에 바탕을 둔 내용을 강조한다.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은 원주민들의 전통과 문화를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집단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차띠노(Chatino) 원주민 마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 언어 교사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Hernández Díaz 1992:152-172). 게다가 교육열이 높은 학생들은 대부분 멕시코의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주민 마을에서 교육의 강화는 원주민 종족성의 약화에 기여한다고 보겠다. 이런 과정을 분석해 보면 원주민들이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거나, 그들의 선조들이 답습했던 사회경제적 지표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ernández Díaz 1993:51; Margolies 1975:155). 장기적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종족집단으로서의 원주민의 존재를 위협한다. 마을의 연대성을 무시하고 각 개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원주민 마을의 구조는 쉽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원주민 의식이 복고적으로 되살아 나는 두 사례를 살펴보자.

오아하까 주의 후치딴(Juchitán) 지역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원주민 전통의 재발견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은 멕시코에서는 드물게 꼬뻬이

(COCEI-Coalición Obrera Campesina Estudiantil del Istmo)라는 좌의 정치 조직이 1974년에 지방 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과거 원주민들의 전통을 복원하고 있다 (Campbell 1993; Matus Manzo 1993). 이 조직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 노동자, 수공업 장인, 상인,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꼬제이에 정치적 지배권이 넘어간 후치딴은 당시에는 멕시코의 행정단위인 무니시페오(municipio) 중에서 좌의 세력에 의해 통치되는 최초의 유일한 지역이었다.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 중에 이미 원주민인 사뽀떼꼬(Zapoteco)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고 원주민어를 쓰는 사람들도 거의 서반아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꼬제이는 정치적 운동의 일환으로서 사뽀떼꼬의 문화와 예술을 새롭게 찾아내어 그들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호나 강연 등에 사뽀떼꼬어를 쓰고, 음악이나 시 그림을 통해 사뽀떼꼬의 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벨라(vela) 축제 같은 여러 가지 전통문화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외부 집단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꼬제이는 원주민 문화와 사뽀떼꼬 종족의식을 옹호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재조명하였다. 전국 규모의 정당들이 메스띠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비해 그들은 지역 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설득한다. 그들은 가난한 사뽀떼꼬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시켜 여당인 제도혁명당(PRI :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과 대결하였다.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강경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투옥되고 실종되거나 살해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 중심의 운동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서, 세력을 넓혀 외부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심지어 같은 사뽀떼꼬 문화권에 속해 있고, 주의 수도가 있는 오아하까 계곡 지역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오아하까 계곡의 페오띠뜰란 멜 바예(Teotitlán del Valle)에서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종족 의식의 고취에 영향을 주고 있다(Stephen 1991). 이 지역에서는 1930-1940년대부터 장식용 카펫의 생산이 활발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점차 지역내의 수요가 줄면서 생산 규모가 작아졌다. 근래에 상인 자본의 유입과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전통 공예품의 상업화가 성공하면서 카펫과 다양한 직물 생산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국내 및 해외 관광객들의 원주민 공예품 선호를 틈타서, 진짜 원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이라고 선전하고 사뽀떼꼬의 원주민 상징을 사용하면서 판매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국내판매의 비중이 높지 않았던 까닭에 폐소화의 평가절하 같은 주기적인 국내경기의 변화에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었다. 옛날에는 가구 내에서 쓰이거나 의례행사 때에 사용되던 물건들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치장하여 파는 문화의 민속화(*la folklorización de las culturas*)에 성공한 셈이다(Bartolomé and Barabas 1986:36-37). 주민들은 지역 내의 연대의식의 고취와 관광객의 대량 유입을

위해 전통적인 사뽀떼꼬 문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즉,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다시 사뽀떼꼬어를 배우고, 마요르도미이나 축제를 성대히 열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여러 원주민 마을을 초청해서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하기도 한다. 상품생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큰 집들을 새로 짓고, 전기와 수도 같은 편의시설도 확충하여 인근지역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다. 그렇지만 근래에 이 마을에서 생산하는 직물의 무늬의 변화를 보면 폐오띠뜰란 사람들의 이런 상업활동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는 사뽀떼꼬 특유의 무늬를 거의 사용했지만, 요즘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나 미국의 나바호(Navajo) 인디언들의 무늬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가 거의 다 충족되면서 카페의 판매가 점차로 부진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이 마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위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원주민들이 단순히 외부사회의 지배법칙에 무조건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주민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내쉬(Nash 1995:13)는 치아빠스 주의 아마떼낭고 델 바예(Amatenango del Valle)의 사례연구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들의 오랜 전통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개혁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고 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을 부각시킬 때도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취사선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요약

종족 문제가 여러 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멕시코의 종족 정체성을 획일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식민 시대 초기에는 종족 문제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의 성격은 서반아인들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 정체성을 분석하는 데, 원주민 마을의 사회 조직만을 보고 설명할 수 없다. 폭력적인 서반아의 식민주의를 통한 정치 경제의 역사적 발전은 종족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종족 문제의 시작은 종족간의 결합과 원주민의 라틴화(Latinization)에 의해 대표되는 과거의 식민 정책으로부터 마련되었다.

멕시코의 독립 이후에는 정치적 지배의 실체가 소수의 백인들로부터 다수의 메스띠 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원주민들과 다른 종족 사이의 관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한편으로는 원주민의 예술, 수공예품, 음악, 춤 등 문화 유산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색다른 문화를 파괴하여 동질적인 멕시코 문화를 창조해내려는 정부의 노력은 영원한 딜레마가 될 것이다. 게다가 원주민과 메스띠소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권력을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메스띠소들은 원주민들이 그들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배경아래에서 원주민 사회는 자신들에게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들의 의식을 끊임없이 재정립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종족문제의 연구는 원초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종족의 의미나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불균등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문화적, 종족적 소속감이나 정체의식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변화하며, 어떤 모습으로 현재 표현되는지를 분석해야 하겠다(Cook and Joo 1995: 52).

현재의 멕시코 종족문제는 메스띠소와 원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메스띠소나 원주민 모두 메스띠소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런 우월성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메스띠소들은 사회적 규범에 근거한 인종적, 종족적 조건아래에서 그들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원주민들은 경제적 조건과 계급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하게 주어진다고 믿고 있다. 즉, 계급과 종족성의 문제가 종족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배와 종속의 역할에 대한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다.

멕시코의 종족적, 문화적 현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얹혀 왔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멕시코 혁명이나 독립의 영웅들, 서반아 정복자들에게 맞서서 싸웠던 아스떼까(Azteca) 제국의 마지막 황제를 국가적 영웅으로 숭배하지만, 그런 것들이 서구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멕시코의 민족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종족 정체성을 국가 정체성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벽에 부딪쳐서,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것은 국가의 종족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과 일반 멕시코 인들이 느끼고 실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행위 사이에 단절이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멕시코의 종족문제는 오늘날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접합되면 서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Adams, Richard N.

1967 "Nationalization," in *Social Anthropology, Handbook of Middle American Indians V.6*, pp.469-489,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Barabas, Alicia M.

1986 "Rebeliones e Insurrecciones Indígenas en Oaxaca : La Trayectoria Histórica de la Resistencia Etnica," in *Etnicidad y Pluralismo Cultural : La Dinámica Etnica en Oaxaca*, A. Barabas and M. Bartolomé(eds), pp.213-256, México :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Bartolomé, Miguel and Alicia Barabas

1986 "La Pluralidad Desigual en Oaxaca," in *Etnicidad y Pluralismo Cultural : La Dinámica Etnica en Oaxaca*, A. Barabas and M. Bartolomé(eds), pp.13-95, México :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Campbell, Howard

1993 "Tradition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 The Politics of Isthmus Zapotec Cultur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0-3:83-97

Chance, John K.

1978 *Race and Class in Colonial Oaxaca*,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Cockcroft, James D.

1983 *Mexico : Class Formation,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State*, N.Y. : Monthly Review Press

Cook, Scott and Jong-Taick Joo

1995 "Ethnicity and Economy in Rural Mexico : A Critique of the Indigenista Approach,"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0-2:33-59

De Zorita, Alonso

1963 *Life and Labor in Ancient Mexico*,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Duran, Diego

1964 *The Aztecs*, N.Y. : Orion

Friedlander, Judith

1975 *Being Indian in Hueyapan*, N.Y. : St. Martin's

- Garcilaso de la Vega
 1965 *Royal Commentaries of the Incas and General History of Peru*,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 González, Mary Lisbeth
 1994 "How Many Indigenous People?," in *Indigenous People and Poverty in Latin America : An Empirical Analysis*, G. Psacharopolous and H. A. Patrinos(eds), pp.21-39,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 González, Nancie L.
 n.d. "Indigenismo and Ethnicity as Modernizing Forces," SLAA monograph no. 8 , Washington D.C.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Harris, Marvin
 1964 *Patterns of Race in the Americas*, N.Y. : Walker and Company
- Hernández Díaz, Jorge
 1992 *Los Chatinos : Etnicidad y Organización Social*, Oaxaca, México : Universidad Autónoma "Benito Juárez" de Oaxaca
- 1993 "Etnicidad y Nacionalismo en México : Una Interpretación," in *Etnicidad, Nacionalismo y Poder*, J. Hernández Díaz, L. J. Parra Mora, and M. Matus Manzo(eds), pp.7-64, Oaxaca, México : Universidad Autónoma "Benito Juárez" de Oaxaca
- Hewitt de Alcántara, Cynthia
 1984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Rural Mexico*, London : R.& K.P.
- Israel, J. I.
 1975 *Race, Class, and Politics in Colonial Mexico, 1610-1670*,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Joo, Jong-Taick
 1995 "Corn-Buying Peasants : The Capitalist Development of Forestry Production and its Impact on the Diversity of Local Economy in Oaxaca, Mexico,"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Knight, Alan
 1990 "Racism, Revolution, and Indigenismo : Mexico, 1910-1940," in *The Idea of Race in Latin America, 1870-1940*, R. Graham(ed), pp.71-113,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Liss, Peggy K.

1975 *Mexico Under Spain : 1521-1566*,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ckhart, James

1976 "Capital and Province, Spaniard and Indian : The Example of Late Sixteenth-Century Toluca," in *Provinces of Early Mexico*, Altman, Ida and James Lockhart (eds),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rgolies, Barbara Luise

1975 *Princes of the Earth : Subcultural Diversity in a Mexican Municipality*, Washington D.C.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Marino Flores, Anselmo

1967 "Indian Population and Its Identification," in *Social Anthropology, Handbook of Middle American Indians V.6*, pp.12-25,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Matus Manzo, Manuel

1993 "Los Zapotecos del Istmo en el Fin de Siglo," in *Etnicidad, Nacionalismo y Poder*, J. Hernández Díaz, L. J. Parra Mora, and M. Matus Manzo(eds), pp. 111-175, Oaxaca, México : Universidad Autónoma "Benito Juárez" de Oaxaca

Nagengast, Carole and Michael Kearney

1990 "Mixtec Ethnicit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5-2:61-91

Nash, June

1995 "The Reassertion of Indigenous Identity : Mayan Responses to State Intervention in Chiapa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0-3:7-41

Pagden, A.R.(ed)

1975 *The Maya : Diego de Landa's Account of the Altains of Yucatan*, Chicago : J. Philip O'Hara

Paz, Octavio

1985 *The Labyrinth of Solitude*, N.Y. : Grove Weidenfeld

Poma de Ayala, Felipe Huaman

1978 *Letter to a King*, London : Allen & Unwin

Psacharopoulos, George and Harry Anthony Patrinos

1994 *Indigenous People and Poverty in Latin America : An Empirical Analysis*,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Ricard, Robert

1966 *The Spiritual Conquest of Mexico*,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iding, Alan

1984 *Distant Neighbors*, N.Y. : Alfred A. Knopf

Ruiz González, María Teresa

1990 "Los Zapotecos del Valle de Oaxaca," in *Oaxaca : Textos de su Historia*, M. Dalton(ed), pp.52-56, Oaxaca, México :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Gobierno del Estado de Oaxaca

Sahagun, Bernardino de

1950 *General History of the Things of New Spain*, book viii, Santa Fe

Spores, Ronald

1984 *The Mixtecs : In Ancient and Colonial Times*, Norma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3 "Spanish Penetration and Cultural Change in Early Colonial Mexico," in *The Indian in Latin America History : Resistance, Resilience and Acculturation*, J. E. Kicza(ed), pp.89-108, Wilmington, DE : Scholarly Resources

Stavenhagen, Rodolfo

1975 *Social Classes in Agrarian Societies*, Garden City : Anchor

Stein, Stanley J. and Barbara H. Stein

1970 *The Colonial Heritage of Latin America*, N.Y. : Oxford University Press

Stephen, Lynn

1991 *Zapotec Women*,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Ströbele-Gregor, Juliana

1994 "From Indio to Mestizo... to Indio : New Indianist Movements in Bolivi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1-2:106-123

Taylor, William

1993 "Patterns and Variety in Mexican Village Uprisings," in *The Indian in Latin America History : Resistance, Resilience and Acculturation*, J. E. Kicza(ed), pp. 109-140, Wilmington, DE : Scholarly Resources

Tejera Gaona, Héctor

1993 "La Comunidad Indígena y Campesina de México," in *Antropología Breve de México*, L. Arizpe(ed), pp. 189-214, México : Academia de la Investigación Científica

Urban, Greg and Joel Sherzer

1991 "Introduction : Indians, Nation-States, and Culture," in *Nation-States and*

- Indians in Latin America, G. Urban and J. Sherzer(eds), pp.1-18,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 Valiñas C., Leopoldo
1993 "Las Lenguas Indígenas Mexicanas : Entre la Comunidad y la Nación," in *Antropología Breve de México*, L. Arizpe(ed), pp.165-187, México : Academia de la Investigación Científica
- Wagley, Charles
1968 *The Latin American Tradition*,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sserstrom, Robert
1983 *Class and Society in Central Chiapa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lf, Eric
1982 *Europe and People without Histor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thnicity in Mexico and Its Local Meaning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Jong-Taick Joo

Due to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ethnicity, it may not be easy to discuss the problems of ethnic identity in Mexico. The Mexican state is faced with the dilemma of contradictory policies towards indigenous people. On the one hand, it promotes the indigenous heritage for nation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it denounces the Indianess by incorporating them into the dominant hegemonic culture which includes or accentuates indigenous traditions. This kind of discourse about ethnic identity was also problematic in the colonial period. The *Conquistadores* glorified and degraded indigenous customs at the same time. Mexican ethnic problems were originated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past colonial policies of miscegenation and Latinization. Naturally, contemporary ethnic conflicts are closely related to past and present ethnic situations.

Since the Mexican revolution,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national ethnic identity in Mexico has been completely monopolized at the nation-state level. But the inconsistent and ineffective efforts of the Mexican government have resulted in more

complicated ethnic relations. Nowadays, indigenous groups in Mexico are so diversified and heterogeneou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adequate ethnic identity socioeconomically and politically. The new discovery of indigenous identity in recent years, represented by the emergence of various political organizations, led the way to redefine Indianness. Under these circumstances, many indigenous people preserve or disregard their ethnic distinctiveness depending on their socioeconomic or political situations. Three cases of local indigenous reactions from the state of Oaxaca are illustrated to reveal the patterns of the transformation of indigenous ethnicity.

In short, national policies to reinvent national identity by transforming traditional ethnic identity fall into unsolvable contradiction.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ethnic problems in Mexico, we have to examine carefully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e wider regional and national society.

주종택,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주소:(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 880-8520(O), 871-6866(H)